



할머니의 바나나를



✎ Ursula Nafula

🔊 Catherine Groenewald

📄 Michelle Kim

🗣️ Korean

📖 Level 4



Storybooks Canada

storybookscanada.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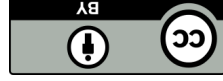
할머니의 바나나를

Written by: Ursula Nafula

Illustrated by: Catherine Groenewald

Translated by: Michelle Kim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Canada's many languages.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할머니의 농장은 사탕 수수, 잡곡, 고구마로 가득 했어요. 하지만 그 중 최고는 할머니의 바나나들이었어요. 할머니는 많은 손주들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저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비밀리에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자주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조그만 비밀들을 저에게 말해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바나나를 어디서 익히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아빠 그리고 할머니에게로 부터 불려갔어요. 저는 제가 왜 불려갔는지 알아요. 그날 밤 제가 자려고 누웠을 때, 다시는 흠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에게서도, 부모님에게서도, 그리고 확실히 누구한테서도요.

어느 날 할머니 집 밖 햇빛에 녹여있는 아주 큰 바구니를 봤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저 바구니는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니 할머니가 가꾸고 있는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 잎들이 떨어졌어요. “바구니야.” 라고만 말해주었어요. 그 바구니 옆에 할머니가 바구니야.” 라고만 말해주었어요. 그 바구니 옆에 할머니가 바구니야.” 라고만 말해주었어요. 그 바구니 옆에 할머니가 바구니야.” 라고만 말해주었어요.



그다음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녀는 항상 닭을 바나나들과 고구마를 들고 시장에 가서 파셨어요. 저는 그냥 할머니께 방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는 버티지 못했어요.





할머니, 바나나들, 바나나 잎사귀들, 그리고 그 큰 바구니는 보는것만으로도 정말 재밌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어머니께 심부름 하라고 보냈어요. “할머니, 제발 보게 해주세요...” “고집부리지 말고 내가 시킨 것을 하거라,” 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다음 날, 할머니가 정원에서 야채들을 따고 계셨을 때, 저는 다시 바나나들을 보러 갔어요. 거의 모든 바나나들이 익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네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문쪽으로 갔을때 할머니의 기침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겨우 다시 바나나를 치마 속으로 넣었고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를 지나쳤어요.

제가 돌아왔을때, 할머니는 밖에서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바구니와 바나나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하지만 바구니와 바나나들은 어디있고, 그리고...” 하
 “하
 하지만 할머니는 모자, “ 그것들은 내 머뭇 장소에 있어.” 라는 답변에 듣지 못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다음 날 할머니가 어머니를 불러 오셨을때, 저는 할머니
 니 집에 가서 바나나들을 할편 더 확인했어요. 너무나
 드 착익은 바나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를 추
 워서 제 차마 속으로 넣었어요. 그 바구니를 다시 들고,
 친 뒤 곧 와서 가지고 온 바나나를 빨리 먹었어요. 제가
 맛볼 바나나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이틀 뒤, 할머니는 할머니 방에 있는 지팡이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할머니 방문을 열자마자, 바나나 익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할머니의 방 구석쪽에 그 마법의 바구니를 발견했어요. 그 바구니는 낡은 이불로 잘 감춰져 있었어요. 저는 그 이불을 들어 아주 환상적인 냄새를 맡았어요.



할머니가 “너 뭐하고있니? 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얘기 하셨을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서둘러서 지팡이를 갖다 드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있니?” 라고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할머니의 질문 후, 제가 아직도 할머니의 마법 장소를 발견했다는것에 대해 웃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